

# 카뱅 사잇돌대출 통했다... 열흘 만에 쏘은행권 한 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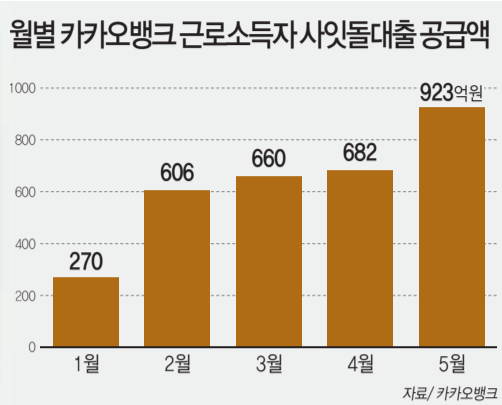
〈개인사업자 대상〉

취급액 120억원...2030 수요 많아  
소득 기준, 중도상환 해약금 없고  
비대면승인 등 차별화로 흥행가도

카카오뱅크가 새로 내놓은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이 흥행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시 10여일 만에 전 은행권의 한 달 취급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선보인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 역시 취급실적이 전 금융권 대비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30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출시한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지난 9일 기준 12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의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과 기존 전 은행권의 취급실적이 월 100억원 안팎인 것을 감



안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이다. 비슷한 정책 중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저소득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데 반해 사잇돌대출은 소득상한 기준이 없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21일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을 출시했고, 지난달 말

부터는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의 증가속도도 빠르다.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3140억원으로 출시 10달여 만에 3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전 은행권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60%에 달한다.

출시 첫 달 2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월 606억원 ▲3월 660억원 ▲4월 682억원 ▲5월 923억원 등으로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사잇돌대출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출 가능여부 조회부터 실행까지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이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편리함에 상품 자체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사잇돌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는 점도 다른 곳과 차별화된 점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사잇돌대출도

다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키로 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900만명이 넘는 카카오뱅크의 고객 가운데 상당 부분이 20~30대로 사잇돌대출 등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중금리대출이 카카오뱅크의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보증보험(SGI)이 원금을 보장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도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962만명이며, 수신과 여신은 각각 16조8171억원, 10조7126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KB금융, 예비 외식창업자 연착륙 돕는다

위대한상사와 창업 생태계 협약  
종합금융서비스, 컨설팅 등 제공



KB금융그룹 SME부문 신덕순 전무(오른쪽)와 위대한상사 김유구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외식산업 자영업자 상생 및 공유매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위대한상사와 '외식산업 자영업자 상생 및 공유매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대한상사는 소자본 예비창업자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매장을 타인에게 공유해 주는 기존 자영업자를 매칭하는 공유점포 플랫폼 서비스 '나누다키친'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이다.

KB금융은 이번 협약으로 '나누다키친'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식산업 창업 인큐베이팅 콘텐츠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KB금융 SME부문 신덕순 전무는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60%에 달하는 등 초기 사업안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실패하면 재창업조차 하기 어려운게 소규모 창업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라며 "외식 부문 창업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KB금융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 우리금융지주, 후순위채권 3000억 발행

역대 최저금리인 2.28%로 확정



서울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지주는 3000억원 규모의 10년물 원화 후순위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채권은 바젤3 도입 이후 국내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최초로 발행된 원화 후순위채권이며,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조건부차본증권 중 역대 최저금리인 2.28%로 확정됐다. 채권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고, 수요예측에서 예정금액 대비 2.7배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당초 신고된 금액보다 많은 3000억원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행된 후순위채권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며

"이는 우리금융그룹의 경영실적 및 향후 비은행부문의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 시장의 신뢰와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3월 말 대비 우리금융지주의 BIS비율은 14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영 기자

## 신한베트남은행, 하남성에 신규 지점

하노이 남부지역 거점 마련  
"올해까지 6개 지점 추가 설립"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하노이 남부지역에 위치한 하남성에 하남지점을 개점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남성은 북부 경제권인 하노이와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노동인구를 제공해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 박닌, 타이응웬, 하이퐁에 이어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하남지점은 기업투자금융(CIB)센터 운영해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는 신한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서춘석 부행장을 비롯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코참, 하남성 인민위원회 등 주요 기관장과 고객들이 참석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외국계은행으로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신한베트남은행 하남지점에서 열린 개점행사에서 신한은행 신동민 베트남법인장(왼쪽에서 열번째)과 코참 김한용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하남성 인민위원회 휘(Mr. Huy) 부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서 최초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며 베트남 전역에서 기업금융은 물론 개인 고객들의 자산관리 업무 및 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이번 하남지점 개점으로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외국계 은행 최다인 총 32개 지점망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추가로 4개 지점을 설립해 올해 말까지 총 36개 채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남지점을 포함해 올해 중 6개 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하남지점 개점을 통해 하남성 뿐 아니라 하노이 남부 지역인 닌빈, 남딘, 타이빈성 소재의 기업 및 개인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KEB하나銀, '기업승계' 법률자문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율촌과 업무협약  
중장기 승계 플랜 등 지원



KEB하나은행은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는 지난 5월 출시한 하나은행의 기업승계 종합 컨설팅 서비스로 ▲가족간 자산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리빙 트러스트 서비스' ▲중견·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후계자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서비스' ▲기업상장(IPO), 매각 및 인수를 지원하는 '기업매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를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기업승계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1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해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장은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토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오너인 '하나 헤리티지 멤버스' 손님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서